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 · 하느님의 자비주일
제34권 22호(가해) 2014.4.27

[묵상]



"... 토마스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무식한 토마가 믿음의 사도로

우리의 각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물질 10%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90%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즉,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10%이다.
우리가 시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뿐이다.
나머지 90%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토마는 무식해서 우리 시각이 확인할 수 있는
10%에만 의존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토마 사도이다.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 믿음은 선택된 사람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느님께 그 사람은 감사 드려야 한다.
무식했던 토마사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믿음을 찾게 된다.
그리고 주님! 하고 고백한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심우석 파비아노, 김옥 안토니오 & 김행선 올리아나, 지수현 요한보스코, 김수아 빅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전시용 요한, 이용식 베드로, 이명자 로사, 엄익찬 안토니오, 송봉규 요셉 & 송공랑 카타리나, 김영철 제임스, 남건우, 안준환 미카엘,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윤희중 & 정진영, 주용범 아브라함, 연옥영혼들 (생)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켄마 & 정엘리스 클라라, 엄세중 그레고리오, 김기준 안젤라, 변혜경 올리아나, 이선복, 박원수 레미지오 & 엄혜은 도로테아, 노찬술 토마스 & 켄마가정, 노경화 소화테레사 & 루이스 코테스, 토렌스 북구역 가정,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2,42-47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분, 찬송 하 여라. 주님의자 애는 영원 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나를 밀치고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독서 베드로 1서(1Peter) 1,3-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요한(John) 20,19-31

영성제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경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62	162	162
봉헌	361	265	194
성체	423	284	287
파견	170	155	170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맺는 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성모 공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초대 교회 박해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경에서도 그리스도 신자들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신앙생활을 지켜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도 혹독한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을 지켰다. 특히 성모님께 의탁하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성모 공경은 분명 정당하고 그리스도 신앙에 큰 도움을 준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모 신심은 그 어느 신심 활동보다도 활발하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에서 성모 신심을 실천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 가지 신심 운동에서 보았듯이 병 치유나 기적적 현상에만 집착하여 성모 발현과 메시지단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면서 입으로만 하느님, 성령, 성모를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체험을 무조건 하느님 계시, 성모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퍼뜨리거나, 우리 사회의 죄를 외면하고 개인의 깊은 상처나 죄책감을 건드려 미사 예물과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연옥, 지옥, 형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불안,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와 개인의 고통을 무작정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 교회는 성모 공경을 발현이나 기적 현상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적인 전례 안에서 신앙생활의 힘을 얻도록 권장하고 있다.

‘메시오 마리아’ 단원들의 활동과 성모 신심은 정당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본과 운영 방법과 정신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모 마리아를 올바로 공경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어머니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그분께 꽃다발이나 초를 봉헌하는 일보다도, 그분처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바라실 것이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자신보다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이 제시한 것처럼, 성모 공경이 전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 신심에 관한 여러 가지 예식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농부의 마음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괜히 저 혼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여성 리포터가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장면을 찍는데, 그날따라 불행하게도 불과 열 마리 정도밖에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TV 촬영이니만큼 오징어가 풍성하게 잡히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한껏 호들갑을 떨었던 탓에 흥작이 된 것 같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리포터에게 선원들은 껄껄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 기름값도 못 댈는 날이 종종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일이면 또 바다로 나갈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많이 잡힐 거라는 희망이란 게 있으니까요.”라면서 오히려 그 리포터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이 농사짓는 일만큼 무모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과학영농이 발달하고, 또 고기떼를 찾아내는 기계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농사일이나 고기 잡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불확실한 미래에 나를 맡기는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직한 어부들이나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이 ‘희망’이란 것을 더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늘 ‘내 뜻보다는 하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에 비하면 도시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라는 말을 내세우며 확실하게 보장된 일이 아니면 그 어떤 노력도, 돈 한 톨도 그냥 투자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도시 사람들에 비해 아주 작은 씨앗 한 알을 심으면서 거기에서 싹이 돋고, 백배 천배 열매가 맺을 것을 신뢰하는 농부들의 마음(농심)이 더 신앙과 가까운 것

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Fact)이란 게 있고,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믿지 않으면 안 될 ‘믿음’(Faith)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하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믿음’과 ‘사실’을 혼동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확실하게 사실을 증명해 보라. 그러면 그걸 보고 믿어 주마.”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실’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확인 작업’만 있으면 되지만, ‘믿음’이란 것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험과 용단’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새겨봅시다. 사실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늘의 뜻에 더 초점을 둘 줄 아는 농부의 마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찬 신부 / 서울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묵묵하게 가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남들은 이런 고비 어떻게 넘겼을까 궁금할 때 많지만
고비 고비 어떻게 했느냐 묻지는 말자.

사는 일에 달리 방법이 있으랴.

그냥 살아내고 견뎌내야 할밖에.

누군가 특별한 방법이 있다 해도 마음 흔들리지 말자.

그런 방법이 있을 리 있겠나.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하나님의 자비주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지난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4월26일(토) 오후 6시에 2명의 아기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수현 요한보스코 ♥김수아 빅토리아

◆ 2014-2015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 오늘주일 주보에 삽지된 것을 참조하십시오.

◆ 백삼위 성모회표 된장, 고추장 맛보세요.

- 판매일시 : 4월26일(토), 27일(주일)
- 품목 : 된장, 고추장, 고구마, 새우젓
- 문의 : 권순길 체첼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백삼위신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 오늘 개막

- 일시 : 오늘 주일(27일)~ 5월11일(주일), 강당
- 작품내용 : 수채화, 유화, 묵화, 사진작품, 서예 등
- 교우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5월첫목요일 성사간

- 일시 : 5월1일(목) 저녁미사후

◆ 성모의 밤 행사 안내

- 제목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 일시 : 5월2일(금) 오후 7시 30분
- 준비 : 개인촛불 봉헌에 사용할 초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 5월3일 첫토요일 신심미사는 없습니다.)

◆ 2014년 본당 여성회정

- 일시 : 5월3(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주제 :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부제 : 봉사자의 자세, 행복한 삶)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오마우라 수녀님
- 대상 : 백삼위 한인성당 모든 여성교우
- 주관 : 소공동체, 성모회, 안나회
- 회비 : \$10(점심, 간식제공)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권순길 세실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예미자 교리반 5월1일(목)부터 개강

- 모집 및 전교기간 : 4월30일까지
- 환영식 : 오늘 주일(27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안나회 5월모임 임시 변경합니다.

- 일시 : 5월4(첫째주일)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노란 리본' 달기에 동참합니다.

본국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도 노란 리본을 현관에 마련해두었으니 비록 멀리 떨어져 살고있지만 고국의 슬픔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27일(주일) : 토런스 서 1,3반(짜장밥 \$3)
* 주일학교(5학년 피자)
 - 5월4일(주일) : 자모회가 친교점심 봉사(햄버거 \$3)
* 주일학교(8학년 햄버거)
- 이밖에 도넛과 커피, 냉동민어, 유기농비누 등을 판매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박민환 윤화경 이재철 최원석	김병학 박현주 이경태 이현주 홍석인	김재영 안재경 이귀란 이형삼	김학겸 안재만 이근태 임 순	민경근 유희연 이우성 정동호	박근식 윤 켄 이인석 주영석 합계 : \$2,515
주일미사 헌금 : \$5,744(부활성야, 대축일 학생미사, 대축일낮미사) 사순애금 : \$9,016	성전헌금	고천용 유희연 이인석 홍석인	김병학 윤화경 이현주	민경근 이경태 이형삼	박민환 이귀란 임 순	박현주 이근태 정동호 최원석 합계 : \$1,725
성지보전특별헌금 : \$1,029	감사헌금 : \$70(박이레네 민기남)					

공지사항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 주관 : 한국어진흥재단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대상 : 한국학교 재학생(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 주제 : '우리가족' (3분이내에 자유롭게 말하기)
- 참가신청 : 5월19일까지 ksaaca@hotmail.com
- 문의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213)388-335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LA분원 돕기 자선 음악회

- 일시 : 5월4일 오후 5시
- 출연 : 소마 뮤직클럽, 마태오성당/아그네스성당 성가대
- 장소 : LA아그네스성당 회관(아담스 + 버몬트)
- 문의 : 작은예수회 김소화데레사 수녀 ☎(213)820-6535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소재 아시시 피정센터
- 수강비 : 부부당 \$400(숙박/식사비 포함)
- 접수 : 백삼위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올리아

◆ 2014 FIAT장학금 및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 신청자격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대학생,대학원생), 신앙공동체의 열심한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GPA 3.0 이상
- 신청마감 : 5월31일(<http://www.fiat.org>)
- 문의 : fiat@fiat.org ☎(714)772-3995 ex 106

◆ 남가주 한인M.E. 제13회 골프잔치

- 일시 : 5월31일(토) 낮12시 티오프, 샷건 플레이
- 장소 : Oak Quarry 컨트리클럽
- 참가비 : \$100 * 신청 : 각본당 ME 대표부부
- 경품과 재미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남가주 전 신자 ● 내용 : 찬미,미사,특강,안수
- 회비 : 없음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네스)

노공동체 4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당자 데레사 328-0847 4/12(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701-9262 4/12(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4/11(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4/12(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4/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4/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신성주 엘리사벳 968-8280 4/12(토) 오후 6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4/16(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40 4/11(금) 십자가의 길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서성용 베드로 800-3709 4/14(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이행자 리드비나 804-7645 4/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 213-700-6983 4/12(토)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리센시아 482-9108 4/11(금) 십자가의 길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판영 레오 818-1799 4/5(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88 4/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4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응답

수년 전, 폴란드 크라코프에 있는 자비의 성모 수녀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에 시성된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시성 기념 대성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환시로 예수님을 뵈 분으로, 화가에게 부탁하여 그런 예수님 모상과, 하느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일기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



<자비의 예수님 상본>

한 신심을 전파하셨지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시고자 쓰신 도구가, 가난한 집안의 10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수녀가 되어서도 문지기나, 혹은 주방 같은 데서 허드렛일을 하신 분이었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느님의 계획은 참으로 특별하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녀원을 둘러보고 자유시간을 얻어 성물 판매소에 들렀습니다. 성물 판매소에는 당연히 자비의 예수님 상본이 여러 형태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러보던 중에 문득 입구의 그늘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상본을 사려다 말고 얼른 되돌아 나와 그분께로 갔는데 멀미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수건을 찬물에 적서 이마에 대어 드리고 등도 쓸어 드리고 심호흡을 권하며 한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일행에게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내색을 하지 않던 그분도 차츰 기운을 차리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자유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보고 주차장까지 천천히 부축하여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분은 잠드셨고 도착할 즈음엔 다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사지 못한 상본이 마음에 남았지만, 이미 떠나 버린 버스인 셈이었지요.

여행이 모두 끝날 즈음, 일행 중 한 분이 꼭 선물하고 싶었다면서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비의 예수님 상본이, 그것도 석 장이나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모습과 표정을 한 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중으로 제작된, 두꺼운 상본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도와드린 분도 아니었고, 원래 친분이 있었거나, 제가 그 상본을 아쉬워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분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의 아주 작은 자비 행위에 하느님께서 역시 자비로 갚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마태 25,36)라고 하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의 그 보잘것없는 행동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또 그렇게 살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그 날의 기억이 오늘따라 새삼스럽습니다.

◆장정에 마리아고레띠 / 부산교구 시조시인

-주말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가 시간을 보내느라 주일 미사 시간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일 미사 시간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설이나 추석이면, 각자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을 하루로 정하지 말고 일년 중에 여러 날로 분산해서 정하면 교통 체증 등의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저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이나 추석이 제사나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통체증 등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설이나 추석을 한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는 단지 신부님 강론 한번 듣고, 성체를 모시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느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신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체로 변화되고, 하느님 자녀들의 공동체를 이룰 때 미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신부님이 본당에 주일 미사 시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 신자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공동체에 오히려 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일주일에 한 번도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무슨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편의와 편리만을 생각하여 하느님의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도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주례성당 주임